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대 임 목 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 육 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종록 Sam Kim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 Sunnyvale, CA

제 5호 35권		Vol. 5 No.35		8.30.2026	
여는 기도		김태아 전도사			
Opening Prayer		Taeah Kim			
경배와 찬양		다같이			
Worship and Praise		Together			
대표 기도		김아론 집사			
Representative Prayer		Aaron Kim			
말 씀		상속자(야라쉬)		한별 목사	
Sermon		열왕기하 2장 9~11절		Byul Han	
합심 기도		다같이			
United Prayer		Together			
봉헌및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Offering				Together	
광 고		담임목사			
Announcements		Serior Pastor			
* 찬 양		삼중 축복		다같이	
Blessing Song				Together	
축 도		한별 목사			
Benediction		Byul Han			

* 자리에서 일어나서
* Please stand



기도 순서

	8/30	9/6(연합)	9/13	9/20(솔라노)	9/27
1부	-	-	임성호	-	김지훈
2부	김아론	민들레	김수경	-	김대환

1.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 증거해주신 한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 연합 및 성찬 예배 안내
다음 주(9/6)는 연합 및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찬양팀 수련회
일시: 9월 6일 (주일) ~7일 (월)
장소: 순복음 파소 교회 (3402 Oak St, Paso Robles, 93446)

4. 천하제일 베드민턴 대회
일시: 9월 13일 (주일) 1시 반
장소: 본당 및 주차장
개인 라켓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콕과 네트는 교회에서 준비)

5. 가정 예배지
40일의 기도로 인하여 가정예배지가 없습니다.

9월 생일

14일 이동은 학 생

16일 김현우 학 생

정남주 집사님

28일 조주현 자 매

큰빛은혜교회 40일의 기도

40일의 기도

일시: 8월 31일 (월) - 10월 9일 (금)
장소: 교육관 및 유튜브(Youtube) Live



8.30.2026

카르페 디엠

현대인들은 늘 미래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 더 안전한 노후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유예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라틴어 ‘카르페 디엠(Carpe Diem, 현재를 붙잡으라)’은 단순한 쾌락주의적 구호가 아닌, 잃어버린 오늘의 가치를 회복하라는 인문학적 경종으로 다가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인문학적 통찰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더욱 완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카르페 디엠은 가장 성경적인 삶의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라는 우상에 갇힌 현대인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지 못하고 늘 ‘그때, 거기’를 바라봅니다.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 집만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오늘을 견뎌의 시간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내일을 향한 과도한 염려는 집착이 되고, 결국 오늘이라는 유일한 실재를 마비시킵니다. 인문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미래의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누리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 내일주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역시 이 ‘미래의 덧’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언어로 이를 포장하곤 합니다. “나중에 고난이 끝나면 감사해야지”, “형편이 나아지면 봉사해야지”라며 현재의 순종과 기쁨을 미룹니다. 심지어 영원한 천국과 내세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오늘을 그저 지나쳐야 할 ‘광야’로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마태복음 6:34)고 말합니다. 광야 길에서도 매일 아침 내려주신 만나 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 카르페 디엠>

성도에게 카르페 디엠은 내 멋대로 오늘을 즐기는 방종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일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거룩한 자족’입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영적 교만일지 모릅니다. 반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전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믿음의 도약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저당 잡혀 오늘의 감사와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향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오늘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이 숨 가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자 성도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카르페 디엠입니다.